어린 왕자

# 1장

제가 여섯 살 때 원시림에 관한 '자연의 실화'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. 보아뱀이 동물을 삼키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었어요. 다음은 그 그림의 사본입니다.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: "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. 그 후에는 움직일 수 없으며 소화에 필요한 6개월 동안 잠을 잔다"라고 적혀 있습니다.

그때 저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. 그리고 색연필로 몇 번의 작업 끝에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. 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:

어른들에게 제 작품을 보여주며 그림이 무서운지 물어봤어요.

하지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: "겁을 내요? 모자 하나에 왜 겁을 먹어야 하나요?"라고 대답했습니다.

제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어요. 코끼리를 소화하는 보아뱀을 그린 그림이었어요. 하지만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: 보아뱀의 속을 그려서 어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했어요. 아이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하거든요. 제가 그린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:

어른들의 반응은 안팎으로 보아뱀 그림을 그만두고 대신 지리, 역사, 산수, 문법에 전념하라는 충고였습니다. 그래서 여섯 살 때 저는 화가로서의 멋진 경력을 포기했습니다.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실패로 낙담했었죠.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항상, 그리고 영원히 설명해줘야 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죠.

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했고 비행기 조종사를 배웠습니다. 저는 전 세계 곳곳을 비행했고 지리학이 저에게 매우 유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.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. 밤에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지식이 큰 도움이 되죠.

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 저는 어른들 사이에서 많이 살았습니다. 저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보았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.

제 눈에는 전혀 이해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간직하고 있던 제 그림 1번을 보여 주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. 이 사람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, 그 또는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:

"그건 모자예요."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보아뱀이나 원시림, 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 저는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갔죠. 다리, 골프, 정치, 넥타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. 그리고 어른은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난 것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.